

강의·영화 감상까지… 중장년층 위한 ‘사랑방’

은행 지점의 재구성

하나50+컬처뱅크

하나은행, 중장년 특화 점포
ATM 옆 숨은 컬처뱅크 공간
사람 향한 새로운 은행 실험
금융상담·문화생활 한자리에

은행 지점이 사라지면서 중장년층의 어려움은 가중됐다. 모바일 뱅킹을 어려워 하는 중장년층은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문을 열기도 전에 줄을 서고, 자신의 순번이 올때까지 한참을 기다린다. 은행 업무만 보는데 최소 2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다.

“오늘은 중장년 지원센터에서 하는 수업듣고 나왔어요. 은행업무요? 보통 수업 들으러 가면서 들르거나 수업 듣고 가요.”

지난 10월31일 오후 2시 30분. 대전 대흥동 하나은행지점에서 지팡이를 짚고 내려오는 김모씨(60세)는 ‘은행업무를 봤냐’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3월 하나은행은 중장년 세대를 위한 융복합 교육공간 ‘하나50+컬처



하나50+컬처뱅크 연금라운지.

/하나은행

뱅크’를 만들었다. 하나의 건물에 하나은행 지점과 중장년 지원센터, 힐링라운지를 조성해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원센터에 은행이 있는 걸 컬처뱅크라고 하는 건가?’

위에는 하나은행, 옆에는 중장년지원센터라고 적힌 간판을 지나 1층에 놓여져 있는 ATM을 보며 생각했다. 엘리베이터 앞에 1층 하나50+컬처뱅크가 적혀 있었다. ATM기가 있는 공간이 컬처뱅크

라는 소리다.

그러던 찰나 ATM기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던 어르신이 ATM뒷편에 있는 검은색 유리문을 열었다. 신세계가 펼쳐졌다. 옛적 손님을 접대하거나 교류할 때 답소를 나누던 공간을 사랑방이라고 했던가. 하나은행만의 사랑방 컬처뱅크가 펼쳐졌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하나50+라운지라고 적혀 있는 ‘연금라운지’가 보였다. 연금라운지는 연금 고객과 사대공적연금, 퇴직

연금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다. 차도 마시고 책도 읽을 수 있도록 있다.

강의실은 3층 중장년지원센터에서 교육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손님초청 세미나, 강의,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최대 22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며 “현재는 중장년 지원센터에서 여러강의로 강의실 사용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화를 볼 수 있는 소극장도 있다. 2명 이상이 영화를 결정하거나 가입한 넷플릭스, 티빙등에서 볼 것을 결정한 뒤 하나50+컬처뱅크에 연락하면 예약시간에 맞춰 상영해준다. 음악감상실은 LP판과 CD플레이어로 음악 감상을 할 수 있게 공간을 조성했다.

하나은행은 인터넷 모바일앱 거래가 늘며 점포가 사라지는 현상에 대비해 하나50+ 컬처뱅크라는 새로운 형태의 점포를 세웠다. 중장년층이 금융업무를 보러 은행에 오면서 강의를 듣고, 영화를 보면서 삶의 여백을 더할 수 있도록 한 공간 실험이다. 이곳은 기술 대신 오프라인 공간 안에서 사람의 관계를 다시 세우려는 사람이 있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카드 News

신한카드

맞춤 프리미엄 혜택 더클래식네오 카드

신한카드는 3일 ‘The CLASSIC NEO(더클래식네오)’ 카드를 출시했다.

더클래식네오는 고객 소비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리미엄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다. 자기 개발, 의료, 보건 등 혜택 대상 업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취향에 따라 ‘나를 위한 기프트(Gift)’ 혹은 ‘가족을 위한 Gift’ 중 하나를 선택하면, 연 1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를 위한 Gift 선택 고객에게는 쿠팡, 무신사, 올리브영 등에서 7만원 이상 결제 시 7만 마이신한포인트를 증정한다. 가족을 위한 Gift의 경우 병원, 약국, 주유 업종 이용 시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국내 이용 금액의 최대 5%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서비스도 마련했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 11만 7000원, 해외 겸용 12만원이다.

현대카드

시너 vs 알카라스 슈퍼매치 경기 개최

현대카드는 오는 2026년 1월 10일 인천 인스파이어리조트 아레나에서 ‘현대카드 슈퍼매치 14야니 시너 VS 카를로스 알카라스’ 경기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현대카드 슈퍼매치는 스포츠와 문화를 결합한 현대카드의 대표 문화 마케팅 브랜드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초청해 국내 최초 라이벌 매치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벤트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남자 테니스 순위 1·2위 단독 이벤트 경기가 준비됐다. 야니 시너와 카를로스 알카라스는 ‘테니스 빅3 시대(조코비치·나달·페더러)’의 뒤를 이어 ‘알카라스-시너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받는 현역 선수들이다. 이번 경기 포는 인터파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현대카드 선예매는 이달 18일 정오부터, 일반 예매는 19일 정오부터 진행된다.

삼성카드-호텔신라

숙박권 기프트 혜택 라리워즈 삼성카드

삼성카드는 3일 호텔신라와 함께 ‘신라리워즈 삼성카드’를 출시했다.

신라리워즈 삼성카드 고객은 ▲신라호텔(서울·제주) 1박 숙박권 ▲신라스테이(국내) 2박 숙박권 ▲50만 신라삼성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해 연 1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숙박권 기프트에는 2인 조식 혜택이 포함되며, 1 신라삼성포인트는 1원의 가치를 지닌다.

이용처에 따라 1000원당 최대 50 신라삼성포인트 적립 혜택도 제공한다. 이용 금액 1000원당 12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항공·골프·백화점·면세점 이용 시에는 1000원당 최대 30포인트를, 신라호텔(서울·제주)·신라모노그램·신라스테이·해외 이용 시에는 1000원당 최대 5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NH농협금융, NIM 하락에도 비이자이익으로 버텼다

이자이익 2050억 줄어든 6.1억 비이자이익 1.8조… 20.6% 증가

NH농협금융은 외부 변수들이 이익을 잠식하자 대비금을 두껍게 쌓고 비이자 수익원을 확대했다. 금리 압박으로 이자이익이 줄었지만 비이자이익 확대와 충당금 정책을 통해 실적 하방을 완충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금융 3분기 성적표의 핵심은 ‘이중 완충’이다. 먼저 리스크 흡수력 측면에서 고정이하여신비율(NPL)은 0.58%로 낮아졌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86.4%로 주요 금융지주(KB 133.4%, 신한 124.09%, 하나 105.0%, 우리 130.0%)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49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81억원(27.6%) 감소해 손익 변

동성도 낮았다.

수익 측면에선 비이자이익이 힘을 보탰다. 비이자이익은 1조87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03억원(20.6%) 늘었다. 구성별로는 유가증권·외환와생 손익이 2641억원, 수수료이익이 1679억원 증가했다. 이자마진 하락 환경에서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실제 숫자로 확인된 셈이다.

특히 NH투자증권의 순이익은 74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15억원 증가했다. 유상증자 1위와 회사채·기업공개(IPO) 2위 등 자본시장 리그테이블 성과와 함께 10억원 이상 고객자산가 고객수가 전년말 대비 33.6% 늘었다.

NH농협금융은 “전 사업부문의 균형 있는 성장으로 NH투자증권은 그룹 비이자이익 성장을 주도해 시장 내 지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은행 본업은 마진 하락세가 이어졌다. NH농협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2024년 9월 1.91% ▲2025년 6월 1.70% ▲2025년 9월 1.67%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NIM 하락에 따라 NH농협금융의 이자이익 역시 전년동기 대비 2050억원(-3.2%) 감소한 6조1863억원을 기록했다.

연결 손익의 흐름을 보면 NH농협금융의 올 3분기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2조3020억원) 대비 421억원 감소했다. 분기 기준으로도 3분기 6312억원으로 2분기(9146억원) 대비 2834억원 둔화했다.

자회사별로는 ▲NH농협은행 1조5796억원 ▲NH투자증권 7481억원 ▲NH농협생명 2109억원 ▲NH농협손보 1219억원 ▲NH농협캐피탈 874억원 순으로 실적을 냈다. 반면 NH저축은행은

-17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NH농협금융의 수익성 지표는 총자산이익률(ROA) 0.60%, 자기자본이익률(ROE) 9.48%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소폭 하락했는데 고금리 정점 구간 이후의 이익 체력 조정 국면에 들어선 모양새다.

NH농협금융은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순이자마진(NIM) 감소세 지속, 보험 손해율 상승 등 부정적 요인 있었으나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반한 유가증권 운용손익과 인수자문·위탁중개수수료 등 비이자이익 성장이 3분기 견조한 실적 견인했다”며 “대내외 경기 변동성에 대비해 리스크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한 결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대폭 개선돼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국토부, 지반침하 예방 직권탐사 실시

지하안전법 개정안 입법 예고 굴착공사장 70개소 특별점검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지반탐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지반탐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지하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직권조사를 위한 지반침하 우려구간을 선정하여 지반탐사를 추진 중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왼쪽 다섯번째)과 정진완 우리은행 은행장(오른쪽 네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 상업·한일 ‘통합 동우회’ 출범

우리은행은 전신인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출신 퇴직직원 동우회가 합병 26년 10개월 만에 ‘우리은행 동우회’로 통합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효

자동에 새롭게 단장한 통합 동우회 사무실에서 ‘통합 우리은행 동우회 출범 기념식’을 개최했다. 동우회는 퇴직직원 간의 친목과 상호보조를 위한 자율적 모임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